

大學文化와 大學生活

吳 世 徹

(延世大 經營學科 教授)

I. 머리글

우리 사회에 문화라는 말이 學術的 용어의 범주를 넘어서서 마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치문화」, 「정신문화」, 「대학문화」, 「노동문화」 등 수많은 文化概念이 나타나 또 하나의 「언어문화」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고 통속적으로 이해되는 문화적 現象으로 보거나, 쓰는 사람 특유의 개념들로 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당혹하게 만든다.

나는 문화를 인공품과 집단의 유형화된 생활 방식으로 보는 人類學者의 폭 넓은 정의나 예술과 같은 상징적 표현으로 국한시키는 사람들의 정의를 모두 중요한 관점으로 포용하면서 문화를 構造的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가지려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皮相的 관찰은 그를 배제한 근원적인 깊은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생산양식의 구조와 그 생산자의 意識의 구조의 결합체로 인식하는 구조적 틀을 사용하겠다. 따라서 대학문화에 대한 인식은 社會文化의 생산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大學文化의 생산자의 주체로서 대학인의

의식은 문화생산자의 보편적 의식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 글은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문화의 構造的 矛盾과 陣痛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거시적 普遍文化構造의 모순을 따지는 동시에, 우리 나라 대학문화가 처한 특수한 역사적 구조의 문제를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보편적으로나 특수적으로 우리 대학문화가 구조적 모순을 넘어서서 꽃 피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大學文化의 밑바탕 構造

대학문화의 보편적 理想은 기존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挑戰과 抵抗에 있다. 그러한 도전과 저항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能動的 주체가 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문화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産業文明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구조적 모순이다.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既成文化를 깨뜨리는 대학문화의 입장은 당연히 반문화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인식론적 입장에서 반문화는 산업시대의 산업문화가 지니는 認識論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 산업시대와 인식론은 지식(특히 과학)을 바탕으로 한 진리에의 추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반문화는 지혜, 직관에 의한 眞理에의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흔히 현대과학과 기술의 거부나 부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려는 인식론의 방향은 오히려 論理實證主義를 비판하는 최근의 인식론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倫理的 次元에서 반문화는 기존질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현대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맞서고 있다. 그들은 거꾸로 기존질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스스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윤리적 기준을 내세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반문화를 快樂主義로 진락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기도 하다. 느낌을 강조하기 때문에 느낌이 좋다는 것이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과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美學的 차원에서 반문화가 내세우는 기준은 기성사회가 가지고 있는 調和나 均衡을 깨뜨리는 부조화와 불균형에 둔다. 여기서는 조화나 균형을 깨뜨리는 파괴적 작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상태로 제구성하는 아름다움의 추구를 뜻한다.

기성의 산업문화가 주도하는 인식론, 윤리의식, 그리고 美意識을 거부하고 그를 넘어서려는 반문화의 구조적 특성은 적극적 형태의 저항문화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현실 도피의 소극적 은둔문화로 가라앉는다. 특히 도피적 형태를 떠는 문화는 消費文化나 産業文化의 구조적 모순과 결합되어 쾌락주의로 변질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너 왔던 역사적 구조를 독특하게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산업문화의 구조 속에 편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民族文化가 지니는 고귀한 유산과 특성을 산업문화의 거센 타류 속으로 떠내려 보내고 있다. 따라서 산업문화가 가져 온 보편적 모순에 저항하는 反文化的 特性은 보편적 대학문화의 중요한 기틀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대학문화만이 특수하게 지니는 구조적 特性을 살펴보고 그를 배태한 역사, 사회의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의 역사적 구조와 대학문화의 聯關性을 따져 보자. 대학이 서구적 산물이라고 하여 大學文化의 역사가 대학의 시작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오히려 학문

을 하는 자들이 主體的으로 형성한 문화는 대학 문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역사가 만봉전적 구조와 그에 이어지는 植民的 구조의 늪에 빠져 있었던 조선사회에 있어서 學人들의 문화의식은 지배계급의 의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歷史意識의 틀 속에 자리하고 있었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민족문화의 보존과 민족의식의 창달을 위한 抵抗意識으로 이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대학문화의 깊은 구조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앞서 생각하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줄기차게 이어지면서 民族文化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문화는 올바른 역사의식이라는 至上命題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파수꾼인 것이다.

정치적 구조와 대학문화의 관련성은 자유를 위한 저항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크기는 민족구성원의 자유로부터 작게는 대학인의 자유를 구가하는 知性은 항상 정치적 억압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그를 저지하려는 저항의식이 대학문화의 밑바탕을 이룬다. 흔히 이를 대학생의 現實參與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대학문화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의 대학문화는 또한 경제적 구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안은 채 산업주의의 보편적 依存體系에 편입된 우리 사회가 지너야 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인식하는 平等意識은 대학문화의 또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특히 산업문화의 보편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 구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학문화의 告發意識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가진 자의 利害關係나 특권에 편들지 않고 못 가진 자와 특권이 없는 자를 위한 의식으로 문화의 기층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끝으로 대학문화는 共同體意識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도 역시 산업문화가 가져다 준 모순을 극복하고,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문화의식을 일깨우는 작업은 바로 대학문화만이 할 수 있는 召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문화는 공동체의식을 깨뜨리는 힘에 대항하

고 갈라지는 자아를 다시 살리려는 운동으로 전개된다.

나는 지금까지 대학문화의 基底가 되는 특성으로서 반문화의식의 보편적 구조와 우리 나라 대학이 지니 왔던 문화의식으로서 민족·역사의식, 자유의식, 평등의식, 공동체의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의식은 下部文化로서의 대학문화가 아니라 전체문화를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核心的 文化主體로서의 의식을 뜻한다. 우리는 바람직한 대학문화의 의식이 꽃피지 못하고 진통을 겪는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대학문화의 生産樣式과 葛藤의 구조

분명히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옛날 학생과 달리 學問의 構造의 變革과 轉換期에 놓여 있으면서 깊은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의 영역에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고 소위 의식 있는 젊은이로 자연스럽게 무장된다. 우리가 급진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根源을 파헤쳐 본다는 뜻이다. 그러한 점에서 요즘의 사회과학 이론들은 그 근원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批判理論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젊은 지성이 비판이론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나는 우리 대학문화의 현상을 정규 생산양식과 비정규 생산양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생산양식이 지니는 구조적 문제와 그에 반작용하는 표면적 양식을 검토할 생각이다.

우선 대학문화의 정규적 생산양식을 검토하면 대학이 제공하는 공식적 지식체계가 지니는 道具性과 價値中立性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문화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적 인간을 양산하는 생산양식은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그 모순을 지탱하여 주는 지식을 젊은이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학문화를 科學的 知識의 집합으로만 묶어 두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기능적 지식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1970년대부터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소위 의식문화의 구조적 틀을 형성해 가고 있

다. 이처럼 우리 대학사회의 정규적 지식생산양식에 대항하는 의식의 생산양식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이들의 갈등과 이중적 구조가 대학문화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다. 批判的 意識文化의 흐름은 우리 대학만이 지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인문·사회과학계의 보편적 움직임이며, 그에 관련된 著作들이 '70년대 중반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용을 우리 대학의 정규 생산양식에서 도외시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학생들의 생산양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正規 學科目에 매여 있는 반면 그들 나름대로의 학회 또는 이념서클을 통하여 의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비판적 의식문화의 출현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1968년 불탄서 5월혁명을 계기로 先進諸國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의식은 세계적 構造의 問題에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게 했다. 제3세계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不平等 구조 속에 놓여 있는 나라, 종족, 계급, 인간의 문제가 「나」의 아픔으로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억압의 조건들을 꿰뚫어 보려는 밝은 눈이 스스로 생겨난다. 특별히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産業化過程에서 尖銳化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주된 관심이 되며 그것은 우리 나라가 지난 20여년간 경험해 왔던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병폐가 그와 연결되면서 요즘 대학생들의 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세계적 보편화(어떤 점에서는 획일화)에 의한 主體性 상실을 저지하려는 젊은 지성의 순수한 民族主義의 발전이며, 그 열기가 옛날보다 강해지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技能的 지식문화와 構造的 의식문화의 갈등과 대립은 앞으로의 우리 대학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의 양극화는 의식 없는 技能知識人과 거친 의식인을 만들 뿐이다. 일단 우리는 우리 대학문화의 구조적 모순의 책임이 정규 生産樣式에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교수를 포함한 대학행정 당국 그리고 문교당국이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젊어질 젊은 대학인들에게 올바른 意識教育을 제공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참다운 지식, 삶의 지혜,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는 지식과 의식의 생산양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까지 非公式的 形態로 전수되고 생산되는 의식문화의 부분을 정규적 학과목의 형태로 재편성하고 그에 관련된 爭點들이 공개적으로 교실에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논의되는 風土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의식문화의 생산양식이 더 정교화되고 확산될 때 체계를 갖추지 않은 저돌적 抵抗文化만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숙된 비판적 인식은 敎理의 주입이나 물리적 의식화 작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경직되고 교조적인 의식문화는 자칫 잘못하면 창조적 批判知性까지도 없앨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학문화의 두번째 生産樣式은 비정규적 생산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체로 놀이와 축제, 그리고 예술의 상징적 表現양식을 갖는다. 이러한 양식은 앞서 설명한 지식문화와 의식문화의 대립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소비적 산업문화와 창조적 민족문화의 갈등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 두 文化樣式의 대립이 심각해진 것 역시 최근의 일이다.

소비문화의 쾌락주의적 풍조가 만연된 것은 산업문화의 일반적 特性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적 구조의 모순으로부터 나타났으며 향락적 쾌감을 자극하면서 대학생들의 정서와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들의 소비문화는 기성세대에 의해 조장되었으며 다시 이것은 대중문화와 迎合함으로써 젊은이들의 행동 모형으로 우상화되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반지성적 양상을 띠면서 약물문화와 결합되고 性의 문란과 찰나적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의 대학문화도 보편적인 향락문화의 구조를 가지면서 개인적 欲求充足을 위한 사회적 발산 메커니즘에 빨려들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대학문화는 민족문화의 發展的 繼承이라는 틀을 구축하면서 그 골격을 다듬어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부단히 이루어

지는 마당극, 탈춤, 실험극, 민속놀이 등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表面的 현상들이다.

민족문화의 象徵性은 공동체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 현실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질타하고 비웃는 카타르시스의 經驗, 理性과 感性을 하나로 묶는 절정경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삶의 양식은 고립되고 분열되는 현대인을 다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있는 문화현상인 것이다. 우리의 대학문화가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재구성된다는 뜻은 그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보편적 民衆文化意識을 갖게 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참다운 민족문화의 제창조와 재구성을 하는 대학생들이 진정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그들은 산업문화의 생산양식 속에서 자라 온 세대이며 그들의 人性體系와 思考方式은 산업문화의 파행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족문화를 감성적 표현의 발로로서만 인식하기 쉽고 공동체로서의 놀이의식이 아닌 발산적 도구로만 이용하기 쉽다.

어쨌든 대학문화의 構造的 陣痛은 그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대학인들의 양면적 구조, 즉 산업문화의 쾌락주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온 특성과 민족문화를 제창조하려는 의식구조 사이의 갈등에 있다. 이는 兩極化되어 가는 소비문화와 민족문화의 갈등인 동시에 한 인간 안에서 부딪치는 갈등인 것이다. 대학생 스스로 소비문화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이 있는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그곳에 埋沒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기성세대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민족문화의 찬연한 빛이 대학문화 속에 潛存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IV. 올바른 大學文化의 定立을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대학문화의 普遍的 特性으로서 기성문화(산업문화)에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대항하는 반문화적 본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우리 대학의 문화적 기저로서 民族·歷史意識, 自由意識, 平等意識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문화의식과

한국적 문화의식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다. 그 모순이 자칫하면 창조적 대학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을 하였다. 즉 技能知識文化와 의식문화의 대립과 소비문화와 민족문화의 대립의 양극화 구조가 오늘날 우리 대학문화가 지니는 본질적 구조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올바른 대학문화를 구축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 저매계층을 포함한 모든 社會構成員들이 대학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다. 산업문화와 이에 영합하는 기성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학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와 세계를 救援할 수 있다는 자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학문화는 창조적 파괴와 비판적 지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의 최후의 문화적 堡壘이다.

두번째는 우리의 대학문화는 우리의 겨레·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깨닫는 일이다. 겨레의 방향을 항상 이상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자유로운 정치사회를 구가하며 경제적 平等構造를 지향하는 대학문화의 소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니는 아픔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개혁해야 할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세째, 기능지식문화와 의식문화와의 대립을 發展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기능적 지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대학교육의 변혁과 아울러 비판적 의식을 길러 주는 정규적 생산양식의 再構成, 체계적 의식문화 육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소비문화와 민족문화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기 위하여서는 대학생 스스로 향락주의적 소비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意志와 소비문화를 억제하는 文化政策의 재구성, 참다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와 이에 대한 지원, 놀이문화의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기주의적 性向을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시키는 대학인 스스로의 피나는 자기극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학문화의 발전에 공헌하는 대학사회의 기성세대인 教授와 문화창조를 지원하는 대학의 支配階層이 자신들의 이해에 집착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대학문화를 보호하는 문화의식을 갖는 것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문화가 오히려 이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질식당하고 매몰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회의 부분이 아니며 대학문화는 기성문화의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와 기성문화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 보고 참다운 方向을 제시하는 세계문화와 민족문화의 本山인 것이다.*